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8】

견우와 직녀성의 세월[承前]

이때 김시현이 황옥을 끌어들인 것은 대담한 계획이었고 그같은 김시현의 판단을 받아들인 김원봉의 결단도 예사롭지 않았던 것으로 사가史家들은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이들이 세운 계획은 5월에 거사를 하는 것이고 대상은 조선총독부와 식산은행殖産銀行、동양척식東洋拓植회사、매일신보每日申報사, 그리고 8도의 도청 등이었다. 첫단계가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파괴와 처단을 수행할 요원을 천진에서 파견하여 전국각처에서 거사를 수행케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경기경찰부 고등계의 황옥 경부가 어떤 명목과 임무로 출장을 나왔든 그 무기의 반입책을 자담하여 귀국하는 셈이 되었으니 의열단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운반책을 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거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상해에 비밀공장을 차려 폭탄을 제조한 의열단은 이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반비조로 8천원圓을 별도 저금해 놓고 있었다. 폭탄의 제조에 못지않게 그 운반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에는 그만한 거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막힐 노릇으로 이 일에 독일인 공학박사와 함께 간여했던 김모金某라는 사람이 이를 감쪽같이 횡취橫取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버린 것이었다.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의열단에서는 대사를 거행하던 중에 갑작스런 전갈錢渴의 사태를 맞았다. 천진에 모여든 의열단원들은 졸지의 전갈에 여비와 차표 구입비 등은커녕 여관 숙박비도 내지 못해 감금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급박한대로 김시현이 가까운 북경 등지로 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백원, 2백원을 구처해 보았으나 그런 돈을 가지고는 회계가 닿지 않았다. 대사는 결정적 순간에 거금의 운반비를 잃고 낭패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귀중한 자금을 횡취해 독일로 달아난 김모는 그뒤 대학에서 수학하여 학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만주국滿洲國의 관리가 되었다가 횡사橫死하는 말로를 걷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다 후일담이고 당장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전갈을 해소하여 대사를 이루어야 하였다. 이에 김시현은 스스로 ‘ 신판 봉이김선달金先達 ’이 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황옥과 하시모토 두 경부를 천진에 무기한으로 붙잡아 둘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귀국해버리면 백사가 또 어렵게 되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었다.

모금을 위해 대책없이 돌아다니다가 안동현安東縣에 이른 김시현은 한 여관에 들어 날을 보내며 이제는 무슨 도적이나 협잡의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손에 쥐지 않고는 천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곳에 있는 태생당병원泰生堂病院의 원장이 재산이 있어 그 증식을 위해 토지와 산야를 사모은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를 둘러쳐 거금을 마련해야겠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는 김시현으로서 난생처음 해보는 엉뚱한 협잡이었다. 어쨌든 협잡의 각본을 머릿속에 짜서 익힌 김시현은 밝은 낮에 그 병원으로 동족 치부인 致富人을 찾아갔다. 형형한 눈빛에 위풍이 다부진 신사 차림의 김시현의 모습에 재산가라 하는 동족 병원장도 우선 압도되었다. 김시현은 자기가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이자 독립운동자의 한 사람임을 밝히고 단도직입 용건을 말했다.

“ 갑자기 운동비가 필요해 이 근처 교외에 가지고 있는 산을 급히 매각하러 왔소이다. 족하足下가 동족으로서 또한 재력이 있다 하니 어차피 급매물이라 헐값에 넘길 터이면 동족에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소이까. ”

“ 정녕 일리가 있는 말씀이외다마는… ”

“ 또한 족하께서도 동족이니 제나라의 국권회복을 위해 음으로든 양으로든 일조를 해야 아니되겠소? ”

“ 그 또한 옳은 하교시지요. ”

“ 아시겠지만 우린 늘 시각이 없소이다. 우선 현지답사부터 한 차례 다녀옵시다. ”

김시현은 그를 나꿔채다시피 데리고 나와 마차를 불러서는 함께 올라 몸을 실었다. 그 병원장은 생각보다 순진하고 또한 지식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판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대를 별로 의심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순진한 동족 재산가를 협잡한다는 게 내심이 안좋았지만 급박한 상황은 그런 감상에 흔들릴 여가가 없었다. 막상 태생당병원장을 마차에 태우고 안동의 시가를 벗어나 교외로 나왔으나 어디쯤에 있는 어떤 산을 자기것인양 점찍어둔 바도 없던 터라 참으로 막연하였다. 그럴싸하게 임기응변할 궁리를 짜며 차창 밖을 열심히 내다보고 있던 김시현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마차를 세웠다. 멀찍한 들 건너 설경雪景에 근사하고 큼직한 산덩어리 하나가 들어온 때문이었다. 김시현은 차부車夫에게 지시해 일렀다.

“ 우리는 저기 저 산까지 가 둘러보고 돌아올 테니 한 네 시간 가량 여기서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들어갔다가 시간에 맞춰 다시 이 자리로 와주든지 하시오. 차임車賃은 후히 드리리다. ”

그러자 차부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병원장이 먼저 물었다.

“ 아니 저길 갔다오는 데 네 시간이나 걸립니까? ”

“ 예. 지난 가을에 왔을 때 시각을 재보니 한 세 시간 걸리더이다마는 지금 보아하니 눈길이 깊어 행보가 어려운 터라 한 시간쯤 더 잡아야 할 것같소이다. 그도 그저 저 산을 높은 데 올라가서 조감鳥瞰이나 하고 내려오자는 게지 대강이나마 둘레까지 답사하려면 내일 이맘때까지로도 부족할 겝니다. ”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둘러대면서 김시현은 그 산이 하도 좋아서 자기가 사둘 때에 샅샅이 둘러보았던 터라 매우 익숙하다는 말까지 더하였다.

“ 그러면 해동이나 한 뒤에 다시 와서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대충 산의 위치 윤곽이나 알아놓은 걸로 그냥 돌아가십시다. ”

병원장이 이렇게 말하자 김시현은 속으로 일차 안심의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정작 안위顔危를 정중히 하여 다그쳤다.

“ 여보, 형장兄丈도 딱한 소리 마시오. 봄이 와서 눈이 녹고 형편이 펴이고 하면 계획이 있어 사둔 산을 무엇 하러 팔겠소? 돈이 당장 급해서 팔자는 것이니 이왕 작심을 하시었으면 마음 변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매듭을 지읍시다. 힘드시더라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말이외다. ”

그러자 병원장이 김시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물었다.

“ 당장 필요하신 돈이 얼마입니까?‘”우선 급히 필요한 게 3천원입니다. 큰 거사에 실기失機할 수가 없어 그러하오이다. ”

이때 돈 3천원이면 적은 게 아니었다. 갑자기 서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와 볼을 때렸다. 그 차가운 삭풍이 오히려 병원장을 재촉하는 듯했다.

“ 좋소이다. 우선 제가 3천원 돈을 드리지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 여기서 돌아가십시다. 자세한 것은 가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십시다. ”

대번에 일이 쉽게 해결된 김시현은 속으로 회심의 웃음을 지으며 그대로 마차에 올라 다시 안동 시내로 돌아왔다. 병원장은 좋은 중국요정의 한 방을 잡아 술과 저녁을 내면서 그 산지 매매에 대한 대충의 계약서를 쓰고 김시현의 수결手決과 날인을 받은 다음 3천원 금액의 수형手形을 써 주었다. 그 수형은 물론 은행에서 바로 교환해 쓸 수 있는 당좌수표當座手票였다.

김시현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그 돈 3천원을 찾아 가지고 천진으로 직행했다. 그 병원장에게는 조국을 위해 그 정도 돈은 의연義捐한 셈치고 속은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뇌이면서였다.

천진에 도착한 김시현은 여관비 등을 치르고 수하물로 포장한 폭탄짐들을 각자가 나누어 들고 다시 안동으로 향하는 귀로에 올랐다. 김원봉에게서 김시현이 인수받은 무기는 대형 폭탄이 6개, 소형 폭탄 30개, 시한폭탄용 시계 6개, 뇌관 6개, 권총과 탄환 수백발, ‘ 조선독립혁명선언 ’과 ‘ 조선관공리에게 고함 ’ 등 전단 1만장이었다. 이를 포장으로 싸고 또 큰 가방 세 개에 나누어 넣었다. 그 큰 가방 셋은 김시현과 황옥, 그리고 유석현이 나누어 들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제일 앞에는 작은 폭탄 두 개를 양쪽 양복 주머니에 넣은 김시현이 서고 그 다음에 하시모토와 황옥 경부가, 그리고 그 뒤를 남정각南廷珏、유석현劉錫鉉、백영무白英武 등 의열단원이 따랐다.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하시모토와 황옥이 들었다. 황옥은 물론 그게 폭탄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시모토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황옥의 이중공작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의 원범인元犯人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멀리 출장나와 힘든 위장술을 벌이고 있는 줄만 알았다. 두 사람의 현직 경부가 이처럼 직접 폭탄짐을 운반하게 되니 어디에서든 관헌의 취체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1923년 3월 5일 천진역을 출발하여 봉천奉天을 거쳐 안동에 이르도록 역개찰구에서나 차중에서나 도착 출구에서나 아무일없이 수하물은 운반되고 3월 7일에 안동역에 도착하여 안동 시내의 한 중국인이 경영하는 무역상회에 보관되었다. 그 중국 무역상인은 반일反日의 의협심을 가지고 조선인의 독립투쟁을 다방면으로 도와주던 인물이었다.

폭탄은 안동까지 운반해오기는 했으나 이제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기차에 싣고 압록강철교를 건너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시현이 황옥 등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여 포장 하나는 3월 8일 새벽에 신의주로 반입시켰으나 나머지는 어려웠다. 이때 마침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의 안동지국安東支局이 안동현의 육도구六道溝에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 있었다. 이를 기회로 성대한 지국 설치연을 열자는 안이 나왔다. 모두가 이를 탁견卓見이라 하여 구체화되었다. 연회 비용은 의열단에서 비밀히 지국장 홍종우洪鍾佑에게 주어 호화로이 열게 하였다.

이 축하연에는 일본제국 안

5면으로 계속

격려에 감사합니다

4월 28일 김포종친회(회장 權晋澤)에서 10만원을, 5월 4일 경주청년회(회장 權德龍)에서 5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제민한의원濟民韓醫院

동통疼痛、성장비만成長肥滿、비염鼻炎 전문
창원시 소계동 713-19
055) 255-3088
e-mail : daehano815@daum.net

원장 권해원權海元
016-297-9065
서울 중산고中山高 ·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졸, 도동보건의료원 한방과장 · 부림한방병원 진료과장 · 보현의료재단 한방병원장 경력